

寶壤梨木 說話 研究

姜 晶 植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祈雨風俗과 原型探究 |
| 2. 寶壤梨木條 檢討 | 5. 太祖와 寶壤의 關係 |
| 3. 口傳說話의 傳承樣相 | 6. 맺음말 |

1. 머 리 말

三國遺事는 史書, 高僧傳, 說話集의 성격을 두루 지니고 있기 때문에 史學, 佛敎, 文學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각자의 관심분야에만 머물지 말고 包括的인 觀點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意見을 모으고 있다.¹⁾ 본고도 이러한 意見에 同意하면서 포괄적인 觀點을 통해 三國遺事 所載 說話에 接近하고자 한다.

1) 三國遺事 研究가 包括的인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趙東一, <三國遺事 說話 研究의 問題와 方向>, 《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 1980) 등 여러 글.

三國遺事は 歷史的 事實 및 狀況, 그리고 佛僧들의 行跡 등 佛教關係 記事를 대부분 說話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 歷史的 事實이나 狀況을 說話라는 虛構的 形式을 빌어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 기록 자체가 그대로 歷史的 事實의 기록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說話라는 형식이 歷史的 眞實을 왜곡하거나 덮어 버리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 버릴 수는 없다. 三國遺事 說話는 歷史的 事實이나 歷史的 흐름을 평면적으로 기술할 때 숨어 버리기 쉬운 裏面的 歷史的 眞實을 드러내 줄 수 있는 歷史記述의 한 방편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²⁾ 그러므로 三國遺事 說話를 이해하는 데 맹목적인 실증적 歷史 이해 태도를 고집하기 보다 文學 및 思想的인 意味 추출과 함께 歷史的 흐름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三國遺事が 많은 부분 說話로 기록된 것은 撰者 一然이 歷史的 事實을 의도적으로 실화화한 때문이 아니라, 기록의 典據를 실화에서 찾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典據가 된 說話가 어떤 것이며, 그러한 說話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는 典據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실화의 수용 태도 및 傳承 變異樣相에 대해 알기 위해서이다.

一然是 여러 가지 전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口傳도 있고 口傳과 밀착된 民間記錄도 있다.³⁾ 이는 三國遺事 說話와 口傳說話의 관계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三國遺事 說話와 口傳說話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現傳 口傳說話에 있다. 실제로 三國遺事 說話와 類型上의 一致를 보이

에서 제시되었다. 한편 실제적인 논의는 월선 이진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2)에서와, 그후 《三國遺事的 綜合的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관심분야를 거론하는 데 그치고 包括的인 觀點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그쳤다.

2) 一然도 이러한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一然, 《三國遺事》〈紀異第一〉, 敍日…

3) 鄉傳云…, 按古傳…, 古傳云…, 古老云…, 諺傳…, 諺云…, 俚諺….

거나, 特定 部分이 거의 一致하는 說話가 口傳되고 있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⁴⁾ 三國遺事 說話가 이른 시기 口傳說話의 모습을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그와 관련된 說話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세월 동안 口傳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대비하여 봄으로써 삼국유사에 실리기 전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에 실리면서 혹은 구전되면서 어떤 변모를 겪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寶壤梨木 說話는 一然이 三國遺事에 실을 當代부터 圓光의 일이니 寶壤의 일이니 論爭이 벌어진 바 있을 뿐 아니라,⁵⁾ 불교설화의 外樣을 하고 있으면서도 ‘瑁目’이라는 매우 낯익은 존재가 등장해서 論者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더욱이 寶壤梨木 說話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慶尙北道 淸道郡과 이웃 密陽郡 일대에서 口傳되고 있는 ‘이무기’ 설화가 채록 보고됨으로써 寶壤梨木 說話는 三國遺事 說話와 口傳說話의 關聯樣相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자료로 주시되어 왔다.⁶⁾ 그러나, 寶壤梨木 說話와 口傳說話의 關聯樣相이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고 寶壤梨木 說話 자체에 대한 논의도 아직 미진하므로 본고에서 深化進展시킬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寶壤梨木條 檢討

寶壤梨木條에서는 “寶壤의 傳은 있지만 鄉里와 氏族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서⁷⁾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寶壤과 雲門寺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寶壤梨木

4) 趙東一이 앞의 글에서 잠깐 거론한 후에 〈三國遺事 說話와 口傳說話의 關聯樣相〉, 〈三國遺事的 綜合的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5) 〈三國遺事〉圓光西學條: …然彼諸傳記 皆無鵠岬瑁目與雲門之事 而鄉人金陟明謬以街巷之說潤文 作光師傳 濫記雲門開山祖寶壤師之事迹合爲一傳 後撰海東僧傳者 承誤而錄之 故時人多惑之…

寶壤梨木條: …爾後人改作新羅異傳 濫記鵠岬瑁目之事 于圓光傳中 系犬城事於毗虛傳 既謬矣 又作海東僧傳者 從而潤文 使寶壤無傳 而疑誤後人 謬妄幾何.

6) 趙東一, 앞의 글 참조.

7) 釋寶壤傳 不載鄉里氏族.

說話와 犬城說話를 소개하였으며, 그 끝에 이르러서는 寶壤梨木說話가 圓光의 일로도 전하나 순전히 寶壤의 사실임을 주장하였다.

寶壤梨木說話는 寶壤이 鵲岬寺를 세우게 된 연유와 瑠目을 시켜 가뭄을 해소시키게 된 사연으로 이루어졌다.

- 가. 寶壤이 西海龍宮에 가서 念佛하여 금빛 비단 가사와 龍子 瑠目を 얻음.
 나. 龍王이 鵲岬에 절을 지으면 능히 적을 피하고 머잖아 佛法 수호하는 어린 임금이 나와 三國을 평정할 것이라 함.
 다. 寶壤이 돌아와 까치가 땅을 쪼는 것을 보고 鵲岬을 찾아 절을 지음.
 라. 高麗太祖가 三國을 평정하고 다섯岬의 밭 오백 걸을 합해서 줌.
 마. 瑠目は 항상 절 곁의 못에서 法化를 陰으로 도움.
 바. 가뭄이 들어 채소가 타고 마름.
 사. 寶壤이 瑠目を 시켜 비를 내리니 온 지방이 흠족함.
 아. 天帝가 몰래 죽이려 하자 瑠目이 寶壤에게 고하니 法師가 숨겨 주고 天使가 찾아 오자 배나무(梨木)를 가리켜 주니 배나무에 베풀치고 감.
 자. 배나무가 부러졌으므로 용이 쓰다듬어 살려 냄. 법사가 呪文으로 살려 냈다고도 함.
 차. 배나무가 근년에 쓰러지니 망치자루를 만들고 銘을 새김.

寶壤梨木條의 분량으로 보아 寶壤이 鵲岬寺를 세우게 된 연유에 해당하는 '가-마'가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寶壤이 鵲岬寺를 세운 사실을 길게 기록한 것은 寶壤이 주인공이란 근거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목은 伏線的 豫言이라 할 수 있으니, 西海龍王의 豫言 대로 寶壤이 鵲岬寺를 지은 후에 太祖가 後三國을 統一하고 佛法을 보호한다. 그런데, 이 대목은 단순한 伏線的 豫言이 아니라 相異한 典據에서 얻어 낸 說話를 寶壤의 일로 짜맞추는 수단으로 적절히 쓰이고 있어서 寶壤梨木條의 근간이라고 할 만하다.

寶壤梨木條에 수용된 說話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가' 대목은 바나를 건너다 龍王을 도와주고 보물이나 龍女를 얻는다는 것으로 다른 데서도 널리 보이

고, 犬城 說話도 다른 문헌에서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口傳에서는 '다' 대목과 견줄 수 있는 '까치전승'이 있고, '라-차' 대목이 매우 풍부하게 이야기된다. 寶壤梨木條와 관련된 說話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寶壤梨木條	關聯說話
가. 龍宮念佛로 가사와 龍子 璞目을 받음	明郎法師 및 玆藏法師 說話, 거타지 설화, 작제전 설화, 군웅 본풀이
나. 까치가 땅을 쪼는 것을 보고 鵲岬寺를 지음	까치傳承
라-차. 가뭄 해소하고 천벌 피함.	이무기 설화, 圓光傳, 崔孤雲傳
ㅇ. 犬城 說話	伊西山城 說話, 毗盧師傳

一然은 寶壤梨木 說話와 犬城 說話가 圓光, 毗盧師의 일로 전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였다.⁸⁾ 그러나 寶壤보다 300년이나 앞선 時代의 人物인 圓光과 崔孤雲傳의 崔孤雲이 寶壤梨木 說話의 주인공 노릇을 번갈아 하고⁹⁾ 寶壤보다 훨씬 앞시대 인물인 유리왕이 寶壤과 함께 犬城 說話에 등장하는가 하면 동시대 인물인 毗盧師가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것은¹⁰⁾ 이들 설화의 주인공이 어느 누구라고 못박을 수 없는 익명의 인물이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¹⁾ 즉 하나의 소재가 주인공만 바뀌면서 계속 전승되었던 것이지 특정한 인

8) 註5) 참조.

9) <崔孤雲傳>에는 孤雲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용왕의 초대를 받고 龍子が 따라나와 호송하여 갔으며, 중이도에서 龍子를 시켜 비를 내리게 한 다음, 잡으러 온 천사를 설득시켜 돌려보내 죄를 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신라의 유리왕이 와서 이서국을 정벌할 때 城은 險固하고 병은 강인하여 싸움이 쉽지 않았다. 군사를 돌이켜 운문사에 이르러 병졸들을 쉬게하고, 寶壤師에게 계책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개는 밤을 지킬 줄 알고 낮은 지킬 줄 모르며, 앞은 지키되 그 뒤는 잊어버린다. 마땅히 낮에 그 북쪽을 공격하라고 했다. 그 말과 같이 하였더니,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境內山城(伊西山城)> <繁山郡志>, 金潤坤, <麗代의 雲門寺와 密陽, 淸道地方>, <三國遺事 研究 上>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3), 70쪽에서 再引.

11) 金鉉龍, <韓國의 古說話論> (새문사, 1984), 84쪽~88쪽.

寶壤의 일로 끌어 매들 성질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西海龍王의 豫言은 寶壤梨木 說話나 犬城 說話 자체를 통해 立證되는 것이 아니라, 兩 說話에 부가된 언급을 통해 입증되는데, 특히 太祖 王建의 출현과 寶壤의 관계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기술되고 있어 주목된다. 太祖와 寶壤의 關係는 寶壤梨木 說話와 작제건 실화가 유사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더욱 의미있게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瑠目이란 존재의 특이함이다. 龍은 불교의 布教手段으로 자주 실화화되었기 때문에 불교설화에 널리 등장한다. 瑠目도 이러한 불교의 布教手段으로 設定된 불교의 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雲門寺의 못에 살면서 비를 내려 가뭄을 해소하는 瑠目は 결코 불교의 龍이라 볼 수 없다. 民間傳承을 보면, 천년 묵은 뱀이 龍 못되어 이무기 또는 광철이가 된다고 하며, 이들은 주로 祈雨祭와 관계된다고 전한다. 그리고 보면, '瑠目'이란 이름은 '이무기'의 漢字表記라 할 수 있다.¹²⁾ 여기서 瑠目이란 존재는 불교의 龍과 民間의 龍이 한데 섞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寶壤梨木 說話가 佛敎說話와 民間說話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寶壤梨木 說話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려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다음 절에서는 寶壤梨木 說話와 口傳說話의 相關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口傳說話의 傳承樣相

2절에서 언급한 대로 寶壤梨木條는 여러가지 說話 자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口傳說話라 할 수 있다.

12) 口傳에는 梨木, 李木, 利木 등이라 하기도 하고, 金鉉龍은 '鱉+목'이라고 보기도 한다(金鉉龍, 앞의 글).

寶壤梨木 說話와 관련지을 수 있는 口傳說話로 지금까지 채록 보고된 것은 다음 몇 편이다.

- (1) 광철이¹³⁾
- (2) 대비뭇의 이무기 (3) 시래 호박소의 이무기 (4) 시래 호박소의 이무기 傳說 (5) 호박소와 대비뭇 이야기¹⁴⁾

(1) ‘광철이’는 淸道郡 안인동에서 채록한 자료이고, 나머지는 밀양군 상동면, 산내면, 밀양읍 등지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寶壤梨木 說話의 배경이 된 곳은 慶尙北道 淸道郡 雲門面 雲門寺이고, 口傳說話의 배경이 된 곳은 淸道郡 錦川面 泊谷洞의 大悲寺이다. 雲門寺와 大悲寺는 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는데, 三國遺事와 口傳이 이처럼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따로 밝혀야 될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雲門寺와 大悲寺가 있는 설화의 본고장에서 口傳說話를 채록한 예가 없다는 점이다. 寶壤梨木 說話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먼저 본고장인 雲門寺, 大悲寺가 있는 마을에 가서 직접 口傳說話를 채록하는 작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 등은 1987년 12월에 三泊四日 일정의 三國遺事 現地踏査의 일환으로 雲門寺와 泊谷洞에 대한 現地踏査 기회를 가진 바 있다.¹⁵⁾ 먼저 雲門寺를 踏査한 다음 이 일대에서 전해지는 口傳說話의 배경이 泊谷洞으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 실제 口傳說話의 채록은 泊谷洞에서 실시하였다. 踏査 결과 얻은 자료와 기왕 보고된 자료를 모두 참고하기로 한다.¹⁶⁾

13) 柳增善, 《嶺南의 傳說》(螢雪出版社, 1974), 462쪽~463쪽.

14) (2)는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8-7. 303쪽 (3)은 341쪽 (4)는 134쪽 (5)는 8-8. 510쪽에 있다.

15) 1986학년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大學院 국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古典文學 研究’란 강좌에서 《三國遺事》를 강독하고 나서 三國遺事 說話의 본고장 답사에 나섰다. 본고는 이 때 얻어진 자료와 강의에 참석하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16) 본 學會誌의 성격과 紙面 관계상 채록자료를 함께 실지 못한다.

먼저 대표적인 口傳說話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I〕

- 가. 大悲寺에 스승과 상좌가 있었다.
 나. 상좌의 이름은 李木이었는데, 밤에 몰래 大悲池에서 龍으로 변신하여
 못을 파는 것을 스승이 알았다.
 다. 그해 가뭄이 들었다.
 라. 스승이 상좌의 재주를 비내리는 데 쓰도록 설득하였다.
 마. 상좌가 비를 내려주었다.
 바. 천제가 벌 줄 것을 알고 스승에게 살 방도를 알려 주고 숨었다.
 사. 천사가 찾아오자 스승이 대추나무를 이목(利木)이라 하니 천사가 대
 추나무를 버락치고 갔다.
 아. 이목은 스승과 작별하고 밀양 시리 호박소로 갔다.¹⁷⁾

〔II〕

- 가'. 大悲寺에 스승과 상좌중이 있었다.
 나'. 상좌가 밤에 몰래 외출하는 것을 알고 스승이 뒤를 밟았다.
 다'. 상좌는 광철이로 변신하더니 산을 무너뜨려 못을 막고 그 못에서 得
 天하려 하였다.
 라'. 스승이 정체를 눈치챈 것을 알고 광철이는 화가 나서 억산 바위를
 꼬리로 쳐 두 조각내고 밀양 시리 호박소로 갔다.¹⁸⁾

〔I〕은 이무기가 天帝의 허락없이 비를 내렸기 때문에 天罰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 대추나무를 '이목(利木)'이라 하여 위기를 넘긴다는 내용이다. 한편 박권묵씨는 이무기 상좌가 천제의 허락없이 비를 내려 범어사 불을 켜는데

17) 註14)의 자료(5).

18) 권대식씨(남·72세) 구연, 필자 채록자료.

이로 인해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하였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제의 허락 없이’ 비를 내렸다는 전승이 범어사 불을 끄기 위해서 비를 내렸다는 전승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러나 이무기가 비를 내린 탓으로 천벌을 받게 된다는 점은 [I]유형에서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또한 배나무를 이목이라 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대추나무를 이목이라 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우세한 전승이나, ‘梨木’ ‘利木’ 등 漢字음이 같음을 이용한다는 점은 어디서나 같다.

[II]는 자료마다 거의 차이가 없다. [I], [II]는 주체가 이무기와 광철이로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의 이야기로 구연되는 경우가 많다.¹⁹⁾ 구연현장에서는 [I], [II] 중 어느 하나만 구연하였다가 중요한 대목을 빼먹었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²⁰⁾ 이처럼 이들 설화의 주체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양상이 달라진다. 또한 여러 구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먼저 구연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음 사람의 구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을 먼저 구연하면 이무기가 정체를 숨기고 상좌 노릇을 하면서 몰래 得天을 꾀하다가 스승에게 발각된다는 대목이 축소되거나, 정체는 발각되지 않고 신이한 재주를 지니고 있음을 스승이 알게 된다는 정도로 약화된다. 그러나, 이무기 상좌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고 유보됨으로 해서, 천벌의 위기를 넘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得天을 꾀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지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II]를 먼저 구연하면, 이무기 상좌가 得天을 위하여 어떻게 정체를 숨기고 나타났으며 어떻게 해서 得天에 실패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실패한 이무기의 행방으로 이야기를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II]를 먼저 구연하면 [I]을 구연하는 데 장애가 되고, 중요한 대목을 빼먹었다는 청중의 항의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 寶壤梨木 說話는 口傳說話 [I], [II]와 비교해 보면 口傳說話 [I]과 類似하니 그 관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은 +, 그렇지 않은 대목은 -, 유사한 상황은 ○으로 표시한다).

19) 박정도씨(남·48세)나 박권목씨(남·67세)가 그렇게 했다.

20) 권대식씨의 구연에 대해 박권목씨가 중요한 대목을 빼먹었다며 마저 구연하였다.

〈표 II〉

寶 壤 梨 木	口傳(I)((II))
가. 寶壤 西海龍宮에서 비단 가사와 璚目을 얻음.	-
나. 龍王이 鵲岬에 절을 지으면 능히 적을 피하고 불법을 보호할 어진 임금이 나올 것이라 함.	-
다. 寶壤이 까치가 땅을 쪼는 것을 보고 鵲岬를 찾아 절을 지음.	-
라. 太祖가 統一하고 다섯 岬의 밭 오백 결을 합해서 줌.	-
마. 璚目は 항상 절 곁의 못에서 陰으로 法化를 도움.	○
바. 가뭄이 들어 채소가 타고 마름.	+
사. 寶壤이 璚目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니 온 지방이 흠족함.	+
아. 天帝가 몰래 죽이려 하매 法師가 天使에게 배나무를 璚目이라 하여 대신 처벌케 함.	+
자. 배나무가 부러졌으므로 용이 쓰다듬어 소생시킴. 法師가 살려냈다고도 함.	-
차. 근년에 배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銘을 남김.	밀양시리호박소로감.

寶壤梨木 說話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寶壤이 중국에 다녀오다 璚目を 데려온다는 내용은 口傳說話에서 찾아볼 수 없다. 寶壤梨木 說話의 璚目は 西海龍子의 아들로 설정되어 神祕한 존재인 듯 하지만 이미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 이야기 전개에 흥미요소가 되지 못하는 반면, 口傳說話에서 이무기는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타났으며 스승도 미처 그 정체를 모르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다고 하여 중요한 흥미요소가 된다. 璚目は 父王의 命에 의해 護法龍으로서 寶壤과 佛教의 從者로 설정되어 주제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陰으로 法化를 돕다가 가뭄에 비를 내린 탓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

자 이제는 오히려 寶壤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더구나 나무마저 寶壤이 살려냈다고 하게 되자 瑠目的 존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무기'는 낮에는 大悲寺 주지를 모시는 상좌 노릇을 하면서, 밤에는 몰래 大悲池에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得天을 꾀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이무기가 중을 찾은 것이 佛法을 수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佛敎의 敎理나 중의 덕에 감화되어서도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口傳說話에서는 이무기의 행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되는 반면 스승은 작은 암자의 중으로 나타날 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²¹⁾ 이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瑠目的에 비해 瑠目的을 종자로 부리면서 죽은 배나무마저 살려내는 능력을 지닌 寶壤의 모습에 주목하게 하는 寶壤梨木 說話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寶壤梨木 說話는 口傳說話〔I〕을 수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泊谷洞 사람들은 寶壤이나 圓光이란 高僧이 근처 어디에서 수도하였었다거나,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으며, 삼국유사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寶壤梨木 說話의 瑠目的이 일반적인 불교의 龍과는 매우 달라 민간 전승을 수용한 것이 확실시 되는 점과 함께, 이 고장 사람들이 寶壤이나 圓光뿐 아니라 三國遺事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寶壤梨木 說話는 바로 口傳說話〔I〕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寶壤梨木 說話가 口傳說話를 수용한 것이라면, 앞에서 살핀 양자의 차이는 口傳說話를 수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윤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1) 박정도씨의 구연에서 중이 도사라 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구연한 실화에서조차 중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무기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도 보통사람은 못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부연한 것인 듯하다. 한편 이밖에 이무기의 행방을 전하는 이야기에서는 중이 등장하지 않고 이무기가 계룡산에 있는 누이를 만나러 다닌다, 욕심이 많아 득천에 실패했다, 호박소 근처에 공부하던 자리가 있다는 등 이무기의 행방이 자세하게 전승된다.

4. 祈雨風俗과 原型探究

이무기 說話가 寶壤梨木에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무기라는 존재가 佛敎說話에 자주 등장하던 佛敎의 龍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이무기 說話가 절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을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이무기 說話는 중이라는 외래종교의 신봉자가 없을 때, 불교사원인 절이 없을 때에도 전승되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록을 가지고 그 연원을 밝힐 수는 없으나, 이무기 說話가 오랜 역사를 지닌 口傳說話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되는 바다. 그렇다면, 이무기 說話가 이른 시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가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寶壤梨木 說話와 口傳說話의 기본요소는 '중-이무기-가뭄'이라 할 수 있다. 寶壤梨木 說話와 口傳說話를 보면, 高僧이니 상좌니, 스승이니 제자니 하는 것은 이들 說話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중-이무기-가뭄' 세 요소야말로 이 설화의 原型을 探究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세 요소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는 우선 가뭄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說話에서 가뭄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나타난다. 자연재해는 인류가 오랜 동안 겪어오면서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으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큰 문제이다. 중도 그러한 노력을 벌였던 인간의 하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무기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고, 그러한 사실은 중이 홀로 알고 있으므로 중으로서는 이무기에게 비를 내려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회원을 중간 매개자가 신에게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굿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중은 일반인과는 달리 神이라 할 수 있는 이무기의 능력을 알고 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무당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무기는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으나, 神異한 능

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변신을 할 수 있고 하늘에 오르려는 존재라는 점에서
 굿의 대상신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과 이무기의 관계는 무당과 神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무기가 가뭄
 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를 내렸다는 것은 이무기가 祈雨祭의 대상신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가뭄이 들어 다른 밭의 채소는 모두 타고 마르는데, 이무기
 상좌가 가꾸는 채소는 싱싱하였든가²²⁾, 범어사에 불이 나자 비를 내려 불을
 꺾었다든가, 지금도 팽철이가 움직이면 가뭄이 든다든가, 이무기가 있는 大悲池
 와 호박소에 祈雨祭를 지낸다는 口傳은 이무기가 祈雨祭의 대상신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²³⁾

口傳說話〔I〕과〔II〕에서 정체가 탄로난 후 이무기의 행위는 상반된다.
 〔I〕에서는 인간을 위하여 비를 내려준다 하였고, 〔II〕에서는 화가 나서 억
 산바위를 두 조각 내고 달아난다고 하였다. 〔I〕이 인간에 우호적이라면 〔II〕
 는 인간에 적대적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우호적이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한
 것도 무신격과 상통하는 일면이라 여겨진다.²⁴⁾ 또한 천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못이나 우물에 살면서 견뎌야 뱀의 허물을 벗고 용이 되어 得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무기의 일생은 特定 대상신이 되기까지 갖은 고초를 겪는다는 巫神의
 본풀이와 유사하다.²⁵⁾

위에서 살핀 대로라면, 이무기 說話는 본래 이무기 神의 본풀이라 할 수 있
 다. 오랜 옛날 祈雨祭는 굿 형식으로 치러졌고, 그 기회에 이무기 神의 본풀
 이가 함께 불리워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다가 이무기 神의 본풀이가 설화
 화되어 민간에 널리 흥미거리로 이야기되고, 굿 형식으로 치루어지던 祭儀
 가 儀式化되는 변모가 오랜 세월을 두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처럼 神聖視되던

22) 寶壤梨木條에서는 “가뭄이 들어 채소가 타고 말랐다”고만 하고 이무기가 가꾸
 는 채소가 어떻다는 말이 없어 주목된다.

23) 註13)과 14)의 자료 참조.

24) 巫神은 인간의 발원을 들어주는 우호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흥함을
 주는 적대적인 존재일 때도 있다.

25) 巫神의 본풀이는 神이 태어나서 갖은 고초를 겪은 다음 특정한 직능을 지닌 神
 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담이다.

이야기가 흥미거리로 傳承되고, 굿 형식으로 치러지던 祭儀가 儒式化되는 변모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²⁶⁾

現在 祭儀는 儒式化되었지만 口傳說話는 중과 절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아 불교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직접적인 불교측의 작용이라기보다 民間의 자연스러운 발상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직접적이며 의도적인 불교측의 영향은 이름없는 중 대신에 寶壤, 圓光 등 高僧의 이름을 넣어 배나무를 이목이라 둘러 넘기는 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중의 능력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이무기의 능력을 평가절하하여 민간신앙에 대한 불교의 우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說話에 나타난 중과 이무기의 관계는 민간신앙의 무당과 신의 관계의 발전이었는데, 불교라는 외래신앙이 들어오면서 재래신앙의 신을 시종으로 삼아 불교의 사제자인 중이 뛰어난 기지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렇게 되자 중과 이무기의 관계는 불교가 어떻게 민간신앙을 누르고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단가를 이야기해 주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²⁷⁾ 한편 인간에 우호적인 이무기 說話〔I〕과 적대적인 靑철이 說話〔II〕는 오늘날까지 강한 傳承力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체적 성격이 강하고 得天하려는 意志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II〕가 불교측에 의해 수용되지 못한 것도 그들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무기’ 설화는 이무기가 남긴 족적과 함께 아직도 기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의 도움으로 본고장에서 널리 이야기된다.²⁸⁾ 이처럼 강한 전승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곧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강우는 풍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한 이무기의 존재가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이야기될 수 없다. 이야기의 흥미도 무시

26) 神聖視되던 이야기가 일상화되는 叙事文學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서는 趙東一, 《구비문학의 세계》, 42쪽~43쪽 참조.

27) 趙東一이 註4)의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28) 아직도 이무기가 날아다니면 가뭄이 든다든지 산에 안개가 끼는 것이 이무기 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정리하여 말하면, 이무기 설화는 이야기의 흥미, 이무기의 족적 및 생활과의 관련 덕택에 아직도 강한 전승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太祖와 寶壤의 關係

三國遺事는 이야기 歷史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歷史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說話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一然은 비록 구전을 取擇하였더라도 그것이 歷史的 事實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受容하였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면서 口傳을 수용하면서도 반드시 地名, 人名, 時代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²⁹⁾

一然이 설화를 다루는 태도에서 사실성을 부여하는 기준을 찾는다면,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人名, 地名 등 고유명사와 時代狀況이라 할 수 있다. 寶壤梨木 說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寶壤梨木의 내용이 圓光의 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寶壤梨木條의 서두에서부터 寶壤과 雲門寺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寶壤梨木 說話 중에도 圓光이 직접 나타나 寶壤에게 도장이 든 케를 줬다고 하고, 주석을 달아 이미 죽은 圓光의 靈이 나타난 것이라며 寶壤과 圓光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설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寶壤梨木 說話의 歷史的 의미 곧 사실적 차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에서 寶壤梨木 說話와 口傳說話를 비교하여 본 바에 의하면, 寶壤梨木 說話 자체가 歷史的 事實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 할 수 있다.

29) 여러 곳에서 이러한 요소가 상이한 전승에 대해 주를 달아 바로 잡으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人名, 地名, 時代가 불분명한 설화들을 과감히 채택하는 데는 자연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전설화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일연이 취한 자료는 일반 민중들의 구연물이 아니라, 識者層 및 佛敎 識者層의 자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寶壤梨木 說話에는 그 전승자들의 歷史에 대한 인식과 사실 부여 노력으로 인한 일정한 역사적 의미가 깃들어 있다.

특히 太祖와 寶壤의 관계, 이들과 불교의 관계는 當代의 時代狀況을 충실히 전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太祖와 寶壤은 羅末麗初를 함께 살았던 인물이다. 이 時期는 太祖나 寶壤 모두에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기였다. 太祖는 후삼국을 통일하여 새 왕조 고려를 건국하였으나 강력한 통치기반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고, 중국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寶壤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宗派가 수입되어 禪宗九山이 興起하던 當代 佛敎界의 狀況에서 鵲岬寺를 세우는 등 나름대로의 기반을 다지던 시기였다. 이들은 新羅社會에서는 中心部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다고 하겠다. 太祖는 본래 王室이나 權力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지방호족에 불과한 존재였고, 寶壤도 敎宗이 전부였던 當代 佛敎界에서 새롭게 禪宗을 추종한 이단아였다.³⁰⁾ 寶壤梨木條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다시 추정해 보기로 하자.

西海龍王이 “瑠目을 데리고 가 鵲岬寺를 지으면 어진 임금이 나타나 佛法을 보호할 것”이라 한 대목과 太祖가 三國을 통일하고 다섯 岬의 발 오백 곁을 합해서 주었다는 대목, 그리고 寶壤이 太祖가 犬城의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계책을 내었고 그로 인해 奉聖寺에 太祖와 寶壤을 동시에 모시게 되었다는 대목이 다시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2절에서도 언급한 대로 西海龍王의 豫言은 寶壤梨木條의 근간이 되고 있다. 西海龍王의 豫言 대로 寶壤이 鵲岬寺를 짓자 太祖가 三國을 統一하고 다섯 岬의 발을 주어 도왔다. 그리고 犬城 說話에서 보이듯 寶壤은 太祖의 建國에 일정한 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正史를 통해 이를 실증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공로가 있었기에 太祖가 雲門寺라 사액하고 다섯 岬의 발 오백 곁을 합해서 주기도 하였을 것이다. 다섯 岬의 발 오백 곁을 합해서 주는 일이 아무 반발없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우나 現地 傳承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30) 雲門寺라 사액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寶壤이 중국 禪宗의 하나인 雲門宗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내린 것이라 본다.

泊谷洞 사람들은 물론 이 일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大悲寺가 雲門寺보다 훨씬 먼저 생기고 큰 절이었다고 하며, 雲門寺는 大悲寺보다 훨씬 뒤인 최근에 세워진 것이고 처음에는 매우 보잘 것 없는 절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大悲寺는 아주 기울고 대신 雲門寺가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한다.

글짜기로 절터 있는 거 보면 한경도 없어요. 이 절이 망한 동시에 운문사가 개창됐어. 그러니 이거 저 운문사가 훨씬 뒤에 생긴 거는 확연하지 뭐. 거 건설에 말이 그래 있다카이. (조사자: 까치가 뭘 물어 가 가지고 운문사가 잘 되고 그런 말씀 있는가요?) 예, 거 있어. (조사자: 그 말씀 해보시죠.) 그 절 질라고 대목이 일로 하는데 그 까치가 낭글 들고 운문사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자 그 까치가 이제 절터를 안다. 그래 운문사가 이제 절터를 잡았어요.³¹⁾

口傳에 의하면 까치가 大悲寺에서 雲門寺로 절터를 찾아갔다고 하였는데, 이는 寶壤梨木條의 까치가 땅을 쪼는 것을 보고 절터를 알았다는 기록 및 太祖가 다섯 岬의 밭 오백 결을 합해서 雲門寺에 주고 사액까지 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口傳에서는 단순히 까치를 통하여 절터를 찾았다는 것보다, 까치가 大悲寺에서 雲門寺로 간 것과 절의 興亡이 깊이 관련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太祖가 다섯 岬의 밭 오백 결을 합해서 주는 한편 운문사라 사액하여 雲門寺가 번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주변 대소사찰이 이미 쇠퇴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그들의 밭을 雲門寺에 합해줌으로 해서 田地를 기반으로 꾸려나가던 사찰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雲門寺의 번창은 주변 대소사찰의 쇠퇴와 맞바꾼 것이라 할 정도로 그 여파가 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고려 太祖가 寶壤을 지원하였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西海龍王의 豫言을 되새겨 보기로 하자. 瑯目을 데리고 가 얼마 후면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진 임금은 고려

31) 박상목씨(남·72세) 구연.

太祖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寶壤은 일찍부터 太祖가 三國을 統一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寶壤으로 하여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람은 누구였는가가 문제이다. 說話에서는 西海龍王으로 나타나는데, 西海龍王은 바로 反新羅 세력의 상징이 아닌가 한다.³²⁾ 反新羅 세력은 地方豪族에 국한되지 않고 寺院에도 있었으니, 當時 寺院이 地方豪族들의 기반에 힘입는 바 많았음을 고려하면 두 세력의 관련이 밀접함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이 寶壤으로 하여금 太祖의 고려 건국을 예상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寶壤이 反新羅 세력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그가 당대 주류인 敎宗을 따르지 않고 禪宗을 추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寶壤은 政治的으로나 思想的으로나 反新羅 세력이었다고 하겠다. 太祖 또한 지방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였으니, 太祖와 寶壤이 서로 도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寶壤과 瑁目的의 관계는 太祖의 祖父母인 作帝建 및 龍女の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作帝建이 龍女를 얻는 과정과 龍女가 변신을 하다가 인간에게 現場을 들키게 되자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결말이 寶壤梨木 說話 및 口傳說話와 비슷하다. 이처럼 유사한 까닭은 직접·간접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作帝建 說話는 高麗 의종代 建國神話로 만들어진 高麗世系에 수용되었다. 高麗世系가 단들어지기 이전에도 高麗의 王들은 龍孫으로 인정되었으나, 作帝建 說話에서처럼 龍神說話가 뒷받침되었던 것이 아니고 高麗世系가 만들어질 쯤에야 비로소 龍神說話로 龍孫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을 것 같다. 그러므로, 作帝建 說話가 寶壤梨木 說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寶壤梨木 說話가 作帝建 說話가 形成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作帝建 說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作帝建 說話는 거타지 설화, 군웅 분풀이와 맥이 닿아, 오히려 그것들의 영향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타지 說話가 作帝建 說話로 수용되면서 佛敎的 색채가 더욱 농후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高麗世系를 만든 김관의가 儒家인

32) 金潤坤, 앞의 글 참조.

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佛教의 색채가 짙어진 것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거타지 說話의 내용이 佛僧講經 모티브와 유사하고, 당대 佛教說話 중에 유사한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佛僧講經 설화는 佛教說話에 원천을 두고 있었기에, 거타지 說話나 作帝建 說話가 佛教의 색채를 다 벗지 못하였고, 寶壤梨木 說話에도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作帝建 說話와 寶壤梨木 說話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先後 영향 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두 說話의 내용을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어있는 데 있다. 두 說話를 관련지어 보면, 西海龍王은 作帝建에게 龍女를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으며, 寶壤에게는 龍子 璿目을 주어 龍女の 孫子인 太祖의 出現을 예언하고 기다리도록 한 것이 된다. 太祖는 後三國의 어지러움을 克服하고 새로운 王朝를 건국할 인물이기에 그의 先祖 作帝建이 龍宮의 怪物을 없애는 武勇을 발휘하는 것이 적합한 반면, 寶壤은 佛教界의 指導者가 될 인물이기에 念佛講經하여 龍王을 감동시키는 道力を 발휘하는 것이 적절한 설정이다. 그러므로 怪物을 물리치거나, 念佛을 하거나 하는 것은 西海龍王을 도왔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西海龍王을 도왔건 그것은 인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다만, 作帝建 說話가 太祖의 血統이 龍孫으로 인정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寶壤梨木 說話도 같은 구실을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作帝建 說話는 의도적으로 高麗王室의 龍孫說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寶壤梨木 說話마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高僧의 行跡을 전하는 說話에서도 마찬가지로 寶壤梨木 說話도 寶壤의 行跡을 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說話의 傳承 의도가 달랐다는 것은 직접적인 상호 교류관계가 없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作帝建 說話나 寶壤梨木 說話는 龍說話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두 설화가 龍說話를 수용한 데는 까닭이 있다. 作帝建 說話는 龍孫이라 해 온 高麗王室의 神話的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龍說話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거타지 설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寶壤梨木 說話는 寶壤의 생

활무대였던 雲門寺 일대의 이무기 說話를 수용하면서 佛教의 布教手段으로 자주 설화화되던 龍說話를 덧붙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一然도 太祖가 龍孫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거의 분명하니, 太祖를 끌어들이면서 高麗王室의 龍孫說을 보강하는 데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一然 등 寶壤梨木 說話의 傳承者들은 王室의 龍孫說을 입증하려는 의도보다 불교 측 입장을 우선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그 근거는 바로 瑠目이란 존재이다. 龍子인 瑠目を 데리고 있으면서 陰으로 護法케 하고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게 하였다는 내용은 龍孫인 太祖가 寶壤을 여러 차례 도와주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西海龍王, 瑠目과 寶壤이 서로 돕는 관계이듯이 太祖와 寶壤도 그런 관계라는 데 차이가 없다. 다만 說話의 文脈에서는 寶壤이 瑠目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우월한 입장임이 두드러지는 차이이다.

龍은 高麗太祖와 그의 추종세력 등 反新羅 세력을 뜻하면서, 그들이 政權을 잡자 高麗의 왕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王建이 龍孫임을 표방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寶壤梨木 說話의 龍, 瑠目도 太祖와 관련지을 수 있다고 보면, 3절에서 살핀 口傳說話 [I]이 取擇되고 [II]가 選擇되지 않은 이유를 다시 추측해 볼 수 있다. '龍 못 된 이무기, 得天에 실패한 이무기'는 후백제의 견훤이나 후고구려의 궁예의 모습이긴 해도 太祖의 모습일 수는 없기 때문에도 배제되었을 것이라 본다.

6. 맺 음 말

三國遺事는 정연한 體系를 갖춘 史書로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體系를 갖추려 하지 않은 덕택에 다양한 자료를 수용할 수 있었고 體系를 갖춘 史書에서는 읽지 못할 歷史的 眞實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寶壤梨木條도 寶壤傳을 立傳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 즉 文獻과 口傳을 수용하고 있다. 寶壤의 行跡은 文獻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口傳에서도 찾기 어려웠기에 圓光의 일이라고도 하는 鶴岬, 瑠目的 일을 찾아 놓았

다. 一然이 寶壤의 일이라 믿었던 鶴岬, 瑛目的 일은 淸道地方에 널리 전해지던 口傳說話였다. 口傳說話를 수용하여 圓光傳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니, 一然이 寶壤의 사실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단편적인 文獻記錄을 보강하고, 太祖와 寶壤의 關係를 내세우면서 寶壤梨木條는 단순한 說話 모음을 넘어서게 되었다.

寶壤梨木 說話의 본고장은 慶尙北道 淸道郡 雲門面 雲門寺와 錦川面 泊谷洞 大悲寺이다. 이 고장에서는 이무기 說話가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무기가 비를 내려 가뭄을 해갈하고 배나무를 이무기라 하여 天罰을 피하는 유형과 정체를 숨기고 상좌 노릇을 하면서 밤이면 몰래 못을 막아 得天하려다가 스승에게 들켜 억산바위에 화풀이한다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앞에 제시한 說話가 寶壤梨木 說話에 수용되었다. 口傳說話에는 이무기의 정체와 행방이 중요 관심사로 나타나며 증은 주변인물에 불과하여 寶壤梨木 說話와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口傳說話를 수용하면서 瑛目을 佛敎의 護法龍으로 바꾸면서 주체적인 성격을 없애는 대신 증을 寶壤이라는 高僧으로 바꾸면서 그 능력에 대한 언급을 더 배려한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본다.

寶壤梨木 說話는 본래 불교의 이념이나, 高僧의 행적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說話가 아니다. 또한 이무기의 행위나 증의 행위를 흥미거리로 이야기하는데 그치고자 한 것도 아니다. 본래 口傳說話의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개자인 증을 통하여 이무기 神에게 비를 내려주도록 비는 곳에서 본풀이 형식으로 불려지던 것이라 본다. 곧, 이무기 說話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승하던 신화이며,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에서 나온 呪術的 이야기이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民間의 흥미거리로 회자되기에 이르고, 불교측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윤색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口傳說話가 高僧의 傳으로 立傳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는 것은 口傳說話의 高僧傳化 및 佛敎說話化가 빈번하게 진행되었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民間信仰의 대상이었던 이무기가 護法龍이란 이름으로 佛僧의 종자가 된다고 함으로써 民間信仰보다 佛敎가 우월하다는 불교측의 주장이 寶壤梨木 說話

에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寶壤梨木 說話는 재래신앙인 民間信仰이 外來信仰인 佛敎에게 자리를 내준 事實을 알려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寶壤梨木條에서 보이는 寶壤과 太祖의 關係는 한 時代를 마감하고 새로운 時代를 앞당기는 데 관여했던 이들의 공통 契機를 드러낸 것이다. 이무기 說話의 이무기를 西海龍子로 설정한 것은 龍孫이라고 하는 太祖와의 關係를 더욱 근접시키는 구실을 한다 하겠다. 寶壤梨木 說話는 民間의 龍이라 할 수 있는 이무기를 끌어들이어 寶壤의 行跡을 설명하고, 太祖와 寶壤의 關係마저 전해 주는 셈이다.

이무기 說話는 淸道郡 일대에서 아직도 강한 傳承力을 지닌 채 널리 구연되고 있다. 이처럼 傳承力이 강한 까닭은 이야기 자체의 흥미도 있을 뿐더러 그 고장의 중요 地形, 地物에 얽혀있는 傳說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이무기 說話가 생활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농사를 짓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무기라는 존재를 농사의 풍흉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로 믿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생길 때마다 이무기의 작난으로 생각하여 祈雨祭를 지내는 등 대처해왔던 것이고 결코 흥미거리로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寶壤梨木 說話는 이른 시기 이무기 說話의 모습을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본고장에는 지금도 이무기 說話가 口傳되고 있어서 양자의 關係를 살피는 데 좋은 자료였다. 三國遺事 說話와 口傳說話의 關係를 파헤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寶壤梨木 說話를 대상으로 한 본고도 일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 一 然, 三國遺事
- 柳增善, 嶺南의 傳說, 螢雪出版社, 1974.
- 鄭尙卦, 韓國口碑文學大系 8-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8-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金鉉龍, 韓國의 古說話論, 새문사, 1984.
- 民族文化研究所 編, 三國遺事 研究 上,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3.
- 徐永大, 韓國原始宗教史小考:〈三國遺事〉에 입각한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第三十輯, 一志社, 1983.
- 趙東一,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_____, 三國遺事 說話와 口傳說話의 關聯樣相,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 _____, 한국문학통사1, 知識產業社, 1982.
- 曹喜雄, 三國遺事 佛教說話의 形成過程,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